

제3차 아시아태평양무형유산고등교육 네트워크(APHEN-ICH) 국제세미나

1. 개요

- 행사명 제3차 아시아태평양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APHEN-ICH) 국제세미나
- 주 제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동질성
- 날 짜 2021년 2월 18일~19일, 15:00~17:00 (대한민국 표준시)
- 장 소 온라인 세미나 (한국전통문화대, 유네스코아태센터, 문화재청 유튜브 라이브)
- 언 어 영어/한국어
- 주 최 아시아태평양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APHEN-ICH)사무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유네스코방콕사무소
- 주 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청

2. 배경

여러 국가에 걸쳐 분포하는 무형유산의 기본적 특성과 문화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형유산은 국경을 초월한 공유성을 지닌다는 인식의 전환과 확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화의 경계를 국경과 동일시하는 근대 국민국가 체계로의 전환은 ‘국가 내 문화’ 또는 ‘경계 내 문화’라는 개념을 형성하였으며, 문화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문화의 배타적 소유권 개념은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도 종종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오랫동안 문화유산과 문화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갈등이 과도한 등재 경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쟁 분위기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이를 통한 평화 실현이라는 유네스코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지역 협력을 증진하며 국제 보호 활동이라는 협약의 취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예방과 이미 발생한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유 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를 권장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공동등재를 강조하며, 문화소유권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을 처리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이행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연계성이 지역적 수준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당사국은 소지역 및 지역적 수준에서 협력하도록 관련 공동체,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소가 특히 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하여 연계성을 발전시키도록 장려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1월 모리셔스에서 개최된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이 남북 공동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는 무형유산이 민족 간 문화적 이해와 연대를 증진하고 평화 구축에 이바지함을 보여준다. 비단 공동등재된 무형유산뿐만 아니라 공유성이 무형유산의 근간임을 인정할 때 문화 다양성의 시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가 간 평화 달성의 초석이 됨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세미나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유산의 동질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옷칠 등 아태지역에서 연행되고 있는 비슷하지만 다양한 무형유산을 살펴보며 무형유산이 문화 다양성의 시각을 달성하고, 포괄적 국제협력과 평화를 실현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3.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발표자
2월 18일(목), 오후 3시~5시		
기조발표 3:00-3:15	아태지역 무형유산의 동질성과 다양성- 옷칠공예문화유산의 아시아적 가치와 보존전략을 위하여	배기동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세션1	국경을 초월한 아시아의 공유유산-옷칠	좌장: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발표1 3:15-3:30	한국 옷칠과 나전 공예의 역사적 변천	이재호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발표2 3:30-3:45	일본의 우루시 옷칠: 문화유산의 복원과 우루시 생산 현황	유지 요네하라 (교토 세이카대학 전통산업혁신센터장)
발표3 3:45-4:00	베트남의 옷칠 회화: 동양의 옷칠 공예 전통 과 서양의 플라스틱 예술과의 관계	트리우 크앤 티엔 (베트남미술대학 교수)
발표4 4:00-4:15	미얀마 칠기와 그 전망	키와 스웨 니언 (미얀마 미치나대학 교수)
발표5 4:15-4:30	몰디브 칠기의 역사적 변천 및 전망	자하 아흐메드 (몰디브 예술문화유산부)
4:30-5:00	질의 응답	
2월 19일(금), 오후 3시~5시		
기조발표 3:00-3:15	공유유산의 다양성과 동질성 유네스코 공동등재 사례를 중심으로	응 웬티 히엔 (베트남문화예술연구원 부원장, 前유네스코 평가위원)
세션2	공유유산의 가치와 보호를 위한 노력	좌장: 알샤미코 (국립필리핀대학 비사야스 명예교수)
발표1 3:15-3:30	음식, 기원 그리고 이동 경로 강제이주 시대의 기억의 성별화	카트리야 험 (UC 버클리교수)
발표2 3:30-3:45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유유산: 구즈하라트와 아라카문화를 중심으로	안찰 메타, 쥬티 슈클라, 티나 다발레 (인도 아메다바드대)
발표3 3:45-4:00	인간-애니토-자연 관계: 토착/지역 지식, <i>Anitism</i>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바비 로페즈 (필리핀국립대 딜리만 박사 과정)
발표4 4:00-4:15	동아시아의 인쇄술의 보편성과 특수성	김방울 (한국전통문화대 연구원)
발표5 4:15-4:30	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계절 축제의 공유, 지속 그리고 보호	샤오 팡, 후어 웬, 수 퀴엔 (북경사범대)
4:30-5:00	질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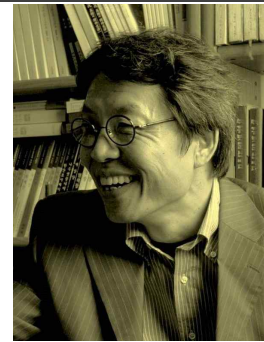
4. 참가자 약력

- Session 1 -



배기동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고고인류학 및 고고학과 학·석사학위를 받은 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인류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제박물관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장, 국제푸른방패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 분과 부위원장,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공호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총감독, 청와대/문화관광부/문화재청 등의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재호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의 회화에 관한 논문을 다수 저술하였으며,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과 박사 과정 재학 중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유관 분야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유지 요네하라는 교토 세이카대학 전통산업혁신센터장이다. 특히 교토의 공예 분야 저널리스트인 동시에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교토의 ‘쇼쿠닌(장인)’에 관한 출판물인 『교토의 예술가들: 장인의 손』, 『에도 시대 히가시야마 천황의 대관식과 1/4 축소 모델』이 있다.



트리우 크앤 티엔은 베트남 미술대학에서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베트남, 스웨덴, 일본 등 국제 대규모 전시회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옷칠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 중이다. 하노이 미술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베트남 미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도쿄 예술대학에서 옷칠 공예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키와 스웨 니언은 현재 만달레이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시에 미얀마 무형문화유산 학술기구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논문과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국내외의 학술회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만달레이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북부 미얀마 지역의 명곡집』, 『카친족의 연대기』 등이 있다.



- Session 2 -

응웬 티 히옌은 국립 베트남 문화예술 연구소의 문화 스포츠 관광학부의 수석 연구원이자 교수이다. 또한 유네스코의 평가 위원으로 2012-2014, 2017-2020에 걸쳐 활동하였다. 러시아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뒤, 인디애나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미국 자연사 박물관과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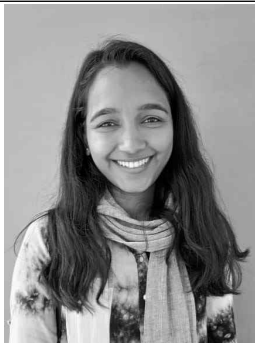
앨리샤 마고는 사회문화 분야의 인류학자이며,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약 40년간 필리핀대학 비사야스 캠퍼스에서 연구원과 교수직을 겸임하였으며, 서부 비사야스 연구소(CWVS)의 소장이자이다. 또한 'Learning from Life'(1994) 연구로 유네스코에서 수상하였으며, 현재에는 정부 기관과 협업하여 영상과 C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카트리아 험은 정치학자이며,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민족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북동 아시안 연구 및 글로벌 연구 센터에서 핵심 교원을 역임 중이며,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시아 디아스포라(Diaspora)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동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안찰 메타는 아메바다드대학의 문화재 관리 센터에서 문화재 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소속 케인강 국립 문화유산 지역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였으며, 또한 인도의 현황에 알맞은 랜드마크(built heritage) 재활성화와 보존을 위해 활동하였다.

쥬티 슈클라는 델리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문화재 관리 센터에서 문화재 관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독일의 카리타스에서 다년간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민자들과 함께 일했다. 주로 인도의 공예, 식물, 문화재 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과 학교 교육을 연결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티나 다발레는 건축가로, 문화재 관리 센터에서 문화재 관리학을 전공하였다. 건축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특히 인도의 건축과 공예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바비 로페즈는 딜리만 필리핀국립대학을 졸업한 후, 필리핀의 역사, 문화, 사회, 젠더에 관한 연구와 출판에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역사, 문화 분야의 책을 저술 중이며, 지역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조직을 이끌고 있다.



김방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문화재관리학을 공부하고,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불교 문헌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가전적자료센터 구축사업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철학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조선시대 심설 논쟁 아카이브 구축팀에서 일하고 있다.

샤오 팡은 북경사범대학의 사회대학에서 인류학, 민속학의 수석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중국 민속학회의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 관심 분야는 역사 민속학, 문화 민속학, 생애주기별 의례와 민속 의식 연구이다.



후어 웬은 석사 과정에서 미술을 전공한 후, 현재 북경사범대학의 사회대학에서 민속학 박사 과정 중에 있다.

수 퀴앤은 석사 과정에서 민속학을 전공한 후, 현재 북경사범대학의 사회대학에서 민속학 박사 과정 중에 있다.

